

# 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 시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이재현 전화: 880-2985, 이메일: ljh7623@snu.ac.kr

배포일: 2023.11.29.(수)

##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, 국가대표 훈련시설 진천선수촌 견학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)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 재학생 46명(국외학생:41명, 국내학생:5명)은 지난 11월 28일(화)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진천선수촌을 견학했다.
-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하고,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다.
- 차세대 스포츠 리더를 꿈꾸는 개도국 출신 재학생들은 교과과정을 통해 스포츠 시설, 스포츠 정책, 스포츠 이벤트 등 스포츠 행정 전반에 대해 공부한다.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거나, 스포츠계 저명 인사의 특강을 통해 관심 분야 네트워크를 확장한다.
- 졸업 후 자국의 정책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립할 때 한국의 사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한국 스포츠 현장 견학 중 시설 견학은 인기가 매우 높다. 르완다 체육부 공무원 출신 11기 학생 장 클라우드(Jean Claude Rukundo)는 “이런 대규모의

체계적인 시설과 시설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니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르완다에 적합한 스포츠 시설과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싶다” 고 언급했다.

- DTM 재학생들은 개도국 공무원 출신이거나, 스포츠 기관 행정가 출신, 또는 선수 출신이 대다수다. 펜싱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요르단 출신 10기 재학생 하야(Haya Naser)는 국가대표 펜싱팀의 훈련 모습을 보며 “졸업 후 우리나라의 펜싱 선수 및 지도자들과 한국의 펜싱 선수, 지도자 간 교류를 통해 한국의 훈련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.” 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.
- 훈련 시설 견학 중 병상장을 방문한 재학생들은 벽에 걸려 있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출전 명단 중 DTM 9기 졸업생 조수지, 박채린 학생의 이름을 보며 DTM 동문으로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.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강준호 단장은 “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기로 선택한 개도국 출신 학생들은 한국 스포츠 전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. 자국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졸업생들은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.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스포츠의 다양한 현장과 생생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.” 고 말했다.
-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 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매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, 중남미 국가의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20여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.